

# 元老 科學技術者의 証言

12

— 理工界 出身 企業主의 哀患 點綴 —



## 洪貞模 先生篇

### ◎ 略 歷 ◎

- 1906. 3. 19. 平安南道 出生
- 現주소 : 서울特別市 城東區 下往十里 977  
(전화 : 254 - 2047)
- 1928. 京城高工 紡織科卒
- 1935. 평양 삼흥직물 自營
- 1938. 西鮮직물사장
- 1939. 平南직물공업 이사장
- 1941. 平南상공회의소의 의원
- 1948. 11~1955. 고려방직공사 現 (판본방적) 이사장
- 1954. 三光직물주식회사 사장
- 1957. 섬유공학회 이사장
- 1962. 商工部 工業標準審議會議 섬유부회장
- 1965. 한국 직물수출조합 이사장
- 1975. 섬유공학회 제 2 회 功勞賞 수상.

### ◇ 産業界에 투신

科學技術을 일생의 業으로 삼을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나 연구소, 기업체등에서 연구에 몰두하는것이 正道인것 처럼 생각 되어 진다. 더구나 日帝下에서는 우리민족의 활동 영역이 지극히 제한된 상태여서 科學技術을 전공한 사람들의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갈곳이란

몇곳되지도 않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科學技術을 전공하고 곧바로 事業을 시작한다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내포한 일종의 投機行爲와 같다. 그런데 내가 事業을 시작했던 1920年代末期만해도 이러한 분위기를 훨씬 심했고 더구나 朝鮮人이 事業을 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였다.

아뭏든 이런시절 겁도없이 젊음만을 밀천으로 産業界에 투신하여 그럭저럭 반평생을 보내고 나니 나같은 머리로 研究生活에 뛰어들었다는 훨씬 보람도 있었고 마음먹었던 일부나마 성취할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돈만 벌자는 생각이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富를 쌓을수도 있었을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만 事業이라는 것을 너무 돈만고려하지 말고 기업자체도하나의 사회조직이니만큼 사회윤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믿어왔고 그대로 믿어왔기에 적으나마 알찬 기업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점을 소홀히 하면 人和도 얻지 못하고 돈도 기업도 잃게된다. 전 종업원과 社長이 일심동체가 되고 기능공의 대우와 정신상태가 옳바로 된다면 기업은 자연히 융성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나의 企業觀이라고나 할까—.

### ◇ 紡織工場을 設立, 運營 ◇

平南 安定사入口, 해발 4~5천m의 高地帶

에서 태어난 나는 별로 넉넉치 못한 생활에 시달리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래도 배워야 한다는 부모들의 극성(?) 덕택에 3·1운동이 나던 1919년 보통학교를 마치기는 했으나 일본인들은 만세 사건이후 보통학교 학생들 까지 미행하면서 보통학교 이상은 1년동안 모두 폐쇄하는 바람에 그해에는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다음해, 학교문이 다시 열리면서 平壤 광성고 등보통학교에 입학, 이 학교를 마친후 京城高等工業學校 紡織學科에 입학했다. 1928년 이 학교를 마친후 平安北道 寧邊産業組合理事로 취직을 했다. 5~6년간 이사노릇을 하다가 29세가 되던해 同職을 사임하고 고향인 평양에 나와 조그만 공장을 自營, 이름을 三興織物이라 지었다.

내가 방직과를 지원 한것은 무슨 큰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나 먹고 입고 자고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옷을 짜는 방직계통이 비교적 工業으로서의 규모를 갖추어 아무 것 모르고 지원해 버렸다.

지금생각해도 우스웠던 일은 당시 京城高工에서는 1년에 한번씩 各科를 돌면서 見學을 시켜 工業 各부분의 이해를 도와주는 課程이 있어 이때는 全校 여학생들이 구경을 하게 되어있었다. 방직과를 다닌 우리들은 머리큰 머슴아들이 링이나 끼우고 배나 따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기 싫어 같이 공부하는 工業學校 학생들에게 이 작업을 맡기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버렸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방면에 들어섰으니 당연한 노릇인지도 모르겠으나 다행히 자기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때 좀더 배울걸 하는 후회와함께 새로운 취미가 불기 시작했다.

大東亞戰爭이 발발하자 개업 1년밖에 앞된 회사는 日帝가 全輕工業체에 기업허가권을 받도록 강요, 存廢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許可願이 없이는 공장을 시설할수도, 기업을 운영할수도 없었으나 다행히 平壤에 있는 日本人들의 공장을 하나씩 사들일수가 있게되어 회사규모는 점점 커져 갔으며 解放 직전에는 自家織

機만 250대를 운영할 만큼 대규모로 성장했다.

解放을 맞은 平壤은 공산당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어갔다. 그리고 平壤에서는 내노라하는 공장이고 보니 끊임없는 괴로움을 당해야했다. 이때 서울에 있는 纖維産業會館에서 美軍政에 인계를 해야겠다는 연락이 마침 도착하여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에 45년 10월초 越南하였다.

당시 섬유산업회관 이사로 朝鮮人 이라고는 나밖에 없어 美軍政에서 나한테 통보를 했던 모양이다.

월남후 이렇다할 일이 없었던 나는 정부수립후인 48년말 정부에서 高麗紡織(現 阪本紡績)理事長에 임명하여 7년남짓 폐허의 同社를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同職도 6. 25로 그만두고 지금의 三光직물을 설립, 새로운 事業을 시작했다.

#### ◇ 눈부시게 發展한 紡織工業 ◇

精紡機200万錠이상, 織機 1万3千台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우리 방직공업은 누가 무어라해도 우리나라 공업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음이 분명하다. 최근들어 각종 경공업과 重化學工業이 활발해졌지만 아직도 총수출의 30%이상을 섬유공업이 차지하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본보기이며 이 방면 중사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내가 平壤에서 三興을 운영하던 시절은 지금 생각하면 조그만 소꿉장난을 했던것같다.

처음 京城高工을 마치고 산업회관 이사가 되어 받은 월급이 135원, 보너스 모으고 적금들어 5~6년뒤 퇴직할때는 8,000원 이라는巨금이 내손에 쥐어졌다.

이돈은 당시에는 대단히 큰 액수였다. 무엇을 할까 망설이던중 기술을 배운 내가 할것이라고는 장사보다는 기술을 써먹어 물건을 만드는게 나올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일본에서 기계를 사들이는데 방직기 한대에 평양까지 운반해주고 200원을 받았다.

땅도 사서 공장을 짓고 처음에는 10대만 사왔다. 그러나 물건이 학교에서 배운대로 되지 않아 1년 넘게 고생만 했다. 또 가까스로 만든 직물을 가공할만한 시설이 평양에 없어 고생은 겹겹이 쌓여 갔다. 그러나 1년 남짓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물건도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고 일본사람들이 공장제품을 많이 사가 회사는 더욱 번창했다. 해방 될 즈음 織機가 250대 정도였으니 어지간히도 커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기계성능으로는 기계 1대가 30마를 한필로 잡아 한달 5,000필을 짤수 있었으니까 하루 생산량이 엄청났다.

1936년 大東亞전쟁이 터지면서 日帝는 섬유제품 기타 경공업제품을 統督府에서 완전 통제하여 품질좋은 섬유제품들이 많이 생산 되었고 東綿, 日綿 등 日本의 巨商들과 거래를 해 판매에는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내 회사가 38以北에서 규모가 컸던것은 회사 자체규모가 컸던것보다는 日帝가 38이북에는 모두 鉉工業시설만 해 威南白川의 텅스텐, 平安사동탄광등 많은 重工業을 건설하였고 經공업은 38이남에 집중한 것도 한 원인이다. 당시 이남의 고려방직(舊鐘紡)은 絹織이었으나 5000주에 1,000대규모의 방직공장도 있었으니까 규모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 越南後 다시 방직회사를 세워 ◇

1.4후퇴로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재탈환한 정부는 곧 고려방직 再建에 착수, 451万 달러를 들여 새기계도 사오고 복구한 뒤에는 나에게 拂下하겠다고 故李承晩대통령이 여러번 이야기하여 한때는 욕심도 부려 보았으나 도저히 그렇게 큰 공장을 복구, 운영할 자신이 서지않아 다시 往十里에 조그만 三光직물을 설립하고 옛날처럼 운영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무척 좋아했던 비로도를 짜 일본에서 들여온 20대의 기계가 수요를 따르지 못할 만큼 잘 되었다.

그후 직기는 120대로 늘고 5.16후에는 수출 산업으로 전환, 時代에 걸맞는 기업운영을 해나

갔다. 내가 수출에 눈을 돌릴때만 해도 수출규모는 3천만달러 정도였고 그중 5~6할은 섬유제품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섬유공장들은 수출보다 내수에 주력하고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생각해도 광복직후의 섬유업계는 물론 다른분야도 그랬지만 電氣가 부족해 많은 곤란들을 겪었다. 48년 5월 14일, 北으로 부터의 送電이 끊기자 淸平, 唐人里, 釜山 등의 몇개안되는 소규모 발전소로는 수요의 한부분을 채우기도 힘들었다. 다행히 내가 이사장으로 있던 고려방직은 1200kw규모의 自家발전시설이 되어있어 그런대로 꾸려나갔는데 한달 8万~10万 필씩을 생산하여 조업상황이 엉망인 다른 기업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때 내가 특히 관심두었던 분야가 켄타 였는데 한참뒤인 1969년 日本製 기계 수입금지조치로 西獨기계를 사오면서 오랜속원을 풀었다. 켄타, 만구르, 싸크라, 다이마쓰 등을 들여왔는데 西獨기계로 작업을 하니까 전국에서 加工위탁이 쇄도했고 先金을 맡기고 가공들을 해갔다. 지금은 웬만한 공장이면 이런 기계들이 다 있지만 그때는 희소가치가 충분했다.

특히 나는 織造기계보다 加工기계를 먼저 도입하여 재미를 보곤 했는데 평양에서 加工기계가 없어 고생하던 경험이 나에게서는 값진 교훈이 되었고 이 교훈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 技能工들이 会社를 左右 ◇

東大門市場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보니 한계가 오기 시작해 64년 무역업등록을 하고 열심히 외국을 드나들어 그동안 12번의 해외여행을 했다. 장사를 하는 끈들은 자주 해외를 드나들면서 이들의 움직임(제품도 포함해서)을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들어 우리 섬유제품의 수출이 부진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해외나들이를 하고 하면서 느낀바로는 결코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Made in Korea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생각으로서는 값이 싸니까 사가기는 했는데 사가보니 싸

이즈도 잘 알맞고 質도 그저그렇고 자기들 국내 산업도 보호해서 실업자를 만들지 않아야 하니까 각종 수입규제를 해야겠고 이런 저런 이유로 수출이 점점 어려워만 간다.

그러나 내가 切實히 느낀것은 우리나라 技能工들, 특히 그들의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

기능공들이 자세를 옳바로 하고 기업주들은 勤勞者들에게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대우를 해준다면 생산비가 상승해도 좋은 물건 만들어 좋은 값만 받으면 앞으로의 섬유류 수출 전망이 어둡지 않은 않다. 지금 경쟁국인 台灣, 香港등보다 우리것이 값은 조금 비싸지만 품질에서는 그만큼 앞서 있기도 하다. 앞으로 技術개발만 꾸준히 계속하고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技能工들의 정신자세만 바르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특히 纖維工業을 하는 사람들이 좀더 노력하고 企業主는 자기 去來先을 계속 확보하며 新市場開拓에 노력한다면 구매어 싼값으로 다른 거래선을 빼앗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좋은 물건을 좋은 값으로 내놓겠다는 생각없이 오늘과 같은 세계경쟁에서 뒤진다고 생각해야 하며 한두번 後進國에 판매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로 馬脚이 드러나게 되어있다.

#### ◇ 纖維工學會의 발전에 期待 ◇

내가 섬유공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應用化學의 安東赫박사, 前 科總會長 金允基박사, 辨理士 李采鎬씨등이 늘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며 의외로 섬유부분의 동료들이 적다.

그러나 섬유공학회 前身인 纖維技術協會會長職을 오랫동안 맡아 보면서 工學會 창립때까지 이끌어온 덕택에 1957년 섬유공학회가 창립되자 곧 工學會會長이 되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協會와 學會는 엄연히 구분되어 져야 하며 적어도 學會는 연구와 발표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돈벌이에 급급했던 내가 이처럼 學團集團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產業界로 돌아가기로 결심, 1년후 同職을 그만두었다. 지금도 纖維技術者

協會에 관계하고 있지만 工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심이어서 學會와는 관계가 없다.

#### ◇ 技能工 精神과 教育 ◇

앞에서도 여러번 이야기한 技能工 정신자세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는 곧 내가 韓國의 기능공이라는 自負心, 제품에 흠이나 없나 하는 注意力, 결점을 수정 보완하는 適應力, 내가 만드는 상품이 세계각국으로 나간다는 自信感등으로 복합 설명 할 수 있다. 이런 정신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하여서는 국민학교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4차5개년 계획에서는 이점을 인식하여 중점투자 할 계획이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中高等 때는 아무리 해봐야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느낀 나는 新村에 光成中高等學校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平壤에서 다닌 학교 이름과 똑같아 이學校로 越南한 셈이되어 버렸으며 3,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나의 이러한 느낌을 조금이나마 일찍 깨우쳐 주려 애쓰고 있다.

#### ◇ 젊은이는 忍耐力을 가져야 ◇

대학을 나오면 현장근무자와 무역을 비롯한 장사길에 들어서는 두개 부류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현장 근무자들은 참고 근무하는 일이 곧 자기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장근무 2-3년이면 당연히 무역부서나 영업으로 바꾸려 애쓴다. 아직도 철저한 技術者根性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企業運營者들 역시 忍耐力이 부족하다. 學校나 연구기관에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對價를 지불하고 지도를 받을 아량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쉽고도 빨리 勝負를 낼 생각들뿐이다.

이는 科學技術분야 출신자들이 책임자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우리 科學技術者들은 이점을 알고 힘든 與件을 묵묵히 참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